

노래하는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이자 평크록 밴드 '튜파이브'의 리더 권선제 씨가 최근 새 EP '그렇게 지나갔던 날'을 발표했다. 무대에서 공연하는 권 씨(왼쪽)와 집배원으로 근무 중인 모습. (본인 제공)

‘꿈’도 배달합니다

광주 인디신 대표 뮤지션

평크록 밴드 ‘튜파이브’ 권선제 씨

집배원 일상 그린 ‘나는…’ 등 발표

평일엔 우편 배달·주말엔 음악 활동

록 페스티벌서 관객과 만나고 싶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일어나/ 빨간 가방을 메고 희망을 찾아간다/(중략)/ 사랑도 이별도 누군가의 아픔도/ 다 소중한 추억이 될 거야”(튜파이브 ‘나는 집배원’ 중)

낮에는 광주 북구 골목골목을 오토바이로 누비며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고, 밤이 되면 베이스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오른다. 편지와 노래를 함께 배달하는 삶, 집배원이자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권선제(33) 씨의 이야기다.

평크록 밴드 ‘튜파이브’의 베이시스트 겸 보컬로 활동 중인 그가 최근 집배원의 일상을 소재로 한 곡 ‘나는 집배원’ 등을 수록한 EP ‘그렇게 지나갔던 날’을 발표했다.

기자는 지난 8일 오전 광주 북구 전대후문 라이브클럽 ‘부드러운 직선’에서 권 씨를 만나 집배원으로서의 일상과 뮤지션으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 인디신에서 15년 가까이 활동해 온 그는 스스로를 ‘노동하는 록커’라고 소개한다. 권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작된다. 오전 7시께 출근해 등기우편과 택배 물량을 분류하고, 배달 순서에 맞춰 다시 정리한다. 준비를 마치면 우편물을 오토바이에 싣고 현장으로 나선다. 일반 우편물부터 등기, 소형 택배까지 그의 손을 거쳐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퇴근 후나 주말이면 그는 다시 ‘뮤지션’의 얼굴로 돌아간다. 동료들과 작업실에 모여 곡을 다듬고 공연 준비에 몰두한다. 광주를 거점으로 서울과 대전, 거제 등 전국 곳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들의 음악을 기다리는 록 팬들과 꾸준히 호흡하고 있다.

권 씨는 이 바쁜 이중생활에 대해 “오히려 즐겁다”며 “집배원으로서의 일상이 음악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노동을 이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웃었다.

이번 신곡 ‘나는 집배원’은 그가 현장에서 마주한 감정들을 담은 곡이다. 권 씨는 “집배원 노래를 제대로 쓰고 싶었는데 막상 잘 안 나오더라”며 “어딜 가면 누가 반겨주고 하는 식으로 쓰면 너무 일기처럼 돼서,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포괄적으로 담아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얼굴들이 곡의 모티브가 됐다.

집배원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떡이나 음료를 쟁겨주는 어르신도 있고, 합격증이나 자격증을 받아 든 젊은이도 있다. 반면 내용증명이나 파산 관련 서류를 받아 들고 굳은 표정을 짓는 이들도 만난다. 그는 “일을 하면서 집배원은 행복도 절망도 함께 배달하는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노래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다. 권 씨는 “집배원 이야기를 다른 노래가 흔치 않다 보니 무겁지 않은 곤인에도 가슴이 뭉클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후배 중에는 ‘듣다가 울었다’고 연락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랜시간 활동하며 로컬 인디신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된 그의 출발점은 고등학교 밴드부였다. 목포공고 시절 처음 들은 크라잉넛의 음악은 그에게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그는 “개가 말하네”

같은 곡들을 들으며 음악이 문학에 기깝다고 느꼈다. 같은 가사를 읽어도 날마다 감정이 달라지는 게 신기했고, 악기 소리에도 감정이 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회상했다.

광주로 터전을 옮긴 뒤에는 본격적으로 인디신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밴드는 2010년 ‘매치포인트’로 출발해 2015년까지 ‘튜파이브’로 팀명을 바꿨다. 멤버 교체를 거쳐 현재는 권 씨와 기타리스트 정찬영(25)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반 4장을 발표했으며, 싱글 음원과 컴필레이션 앨범 참여 등으로 꾸준히 음악을 선보여 왔다.

물론 ‘음악으로 먹고 사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20대 중반 그는 음악 강사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보냈지만, 그 여유가 오히려 음악을 메마르게 만들었다. 권 씨는 “오후 시간이 너무 비어 있으니 PC방이나 술자리로 가게 되고 어느 순간 음악이 재미없어지더라”며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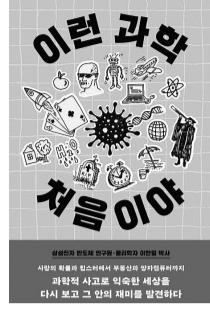
이후 여러 직장을 거치던 그는 우연히 친해진 집배원들의 권유로 우체국 시험을 준비했고, 2020년 봄 집배원으로 별장을 받아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고정 수입이 생기니 음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별의 별 일을 겪는 이 일이 지금은 즐겁다”고 말했다.

권 씨가 꿈꾸는 것은 더 큰 무대다. 그는 “광주에서 인정받고 싶고 전국 록 페스티벌 같은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방향을 잃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돈을 쓴으면 음악이 거짓이 된다”며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하면 더 공감받을지를 고민하면서 오래 활동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집배원으로서 매일 누군가의 소식을 전하듯, 그는 무대 위에서도 자신이 느낀 삶의 감정을 음악으로 전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세상을 과학으로 보는 물리학자의 생각법

광주 출신 이한결 박사 ‘이런 과학 처음이야’ 펴내



‘과학을 오래 사랑해서 생각이 조금 독특해진 사람’

물리학 박사인 이한결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조차 최적화가 된 결과인지 고민하는 식이었다.

‘이런 과학 처음이야’(비다출판사)는 어린 시절부터 일상화했던 과학적 사고와 의문이 확장된 결과물이다. ‘세상 모든 일은 과학으로 보는 물리학자의 생각법’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일상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 의문과 시각을 담고 있다.

‘대마리의 수학적 정의’, ‘요즘 것들이 버릇없는 과학적인 이유’,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눈먼 돈을 버는 방법’, ‘족보의 진실’ 등 각각의 소재와 질문들은 다소 엉뚱하기까지 하다. 책 제목을 ‘이런 과학 처음이야’로 붙인 이유가 짐작이 된다.

‘대마리를 위한 사고실험’을 모티브로 한 글은 흥미롭고 이색적이다. 머리카락이 열 가닥 있는 남자를 예로 든다. 그는 매일 두 가닥이 빠지고 두 가닥이 새롭게 난다. 모발 열 가닥이 각각 10cm라면 모발 총 길이는 1m다. 10cm 두 가닥이 빠지고 80cm 두 가닥이 생기면, 하루 뒤 모발 총 길이는 80cm가 된다.

모발 수로는 탈모는 아니지만 길이는 점차 대머리가 되어 가는 형국이다. 여기에서 간과한 사실이 있다. 모발의 수만 고려했지 자라는 양을 생각하지 않은 것. 머리카락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일정량의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 저자는 “빠진 모발 길이의 총합을 전체 모발의 수로 나눈 만큼 각 모발이 길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다른 변수도 있다. 빠지고 자라는 과정에

서 모발이 짧은 것도, 긴 것도 있을 수 있다. 천차만별, 즉 ‘분산의 증가’가 있다. 저자는 분산이 최대인 분포를 상정하면 수학적으로 1m짜리 한 가닥만 남고 나머지는 0cm에 가깝게 된다.

이처럼 저자의 상상은 발랄 유쾌하다. 고전적인 관점의 어렵고 난해하고 무거운 과학이 아닌 한번쯤 의문을 가졌을 법한 상황이나 주제를 가벼우면서도 쉽게 풀어낸다. 거창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바라보기 하는 방침을 두고 있다.

“이건 왜 이런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실타래 풀리듯 풀려나가는 과정은 과학의 신비를 일깨운다.

이 박사는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잠깐이나마 선물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과학은 원래 그렇게 시작된다. 정답을 아는 사람보다 궁금한 사람이 먼저 그 틈새를 들여다본다”고 말한다.

한편 광주 출신의 저자는 서울대에서 물리학 관련 학·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UC버클리에서 재료공학을 연구했으며 현재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함께 책 읽고 ‘사유의 힘’ 키워요

여수시립도서관, 6개 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책·모임 공간 대여

흔자 읽던 책이 함께 읽는 책이 될 때, 생각은 깊어지고 관계는 넓어진다. 여수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독서 모임을 돋기 위해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순신·쌍봉·현암·돌산·소라·율촌 등 6개 시립도서관에서 활동할 독서동아리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라면 장르나 주제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교·정치·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거나 정기 모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도서관 내 모임 공간이 제공되고, 토론 도서를 최대 30일까지 빌릴 수 있는 장기 대출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동아리별 토

론 도서 구입 지원, 멘토나 작가를 초청한 강연 프로그램 등도 연계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독서동아리 3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시민 주도의 독서 활동이 지역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참여를 원하는 모임은 여수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해당 도서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도서관 운영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시 도서관 운영과 관계자는 “독서동아리는 책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화 활동”이라며 “책으로 이어진 작은 공동체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